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섭리,복      제목:   예측을 뛰어넘는 것들   성경:사무엘하6장  
10-15절

10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3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오니라 (삼하6:10-15)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 넘으신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황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사람들끼리는 더욱 황당함을 경험하지 않는가?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은 사소하게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집쟁이. 그는 결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영쿨을 예비하시고 그가 깨우치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복을 받으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예측을 뛰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보여 주신다.

-그 예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몇가지만 보자.

## 1. 죄인에게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다.

-모든 인생이 한오백년은 살아야 이제 좀 사는게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죄까지 지어가며, 허송세월 보내가며 살다 보니 40년은 너무 짧아 전광석화와도 같다.

-그러나 기다리는 40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려 주신 셈이다.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죄를 방치하는 것이요, 그 후손들에게는 더 큰 저주가 물려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오래도록 기다리신 것이다.

-사울의 왕위 40년

-엘리의 사사 제위 40년(98세)

-아말렉의 약500년 동안의 노략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그 은총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 잃어버린 세월의 10분의 1이라도 간절하게 구하자.

## 2. 저주는 생각보다 더 끈질기고, 복은 생각보다 더 풍성하다.

-사람들은 저주를 너무 쉽게 잊어 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한다.

-사울은 착실하게 저주를 쌓은 사람, 다윗은 착실하게 복을 쌓은 사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으나 나중에는 오만하였다. 그는 하나님보다 명예를 택하였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였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저주를 쌓았고, 다윗을 시기하면서 세월을 허송한다.(사울이 저주를 쌓자 하나님은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신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들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사울은 아마 이권과 관련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3년 기근 끝에 그 후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아들을 잃었고, 충신 헛사람 우리아를 죽였다.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계속되었는데,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또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아도 반역을 꾀하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복을 받는 일도 많다. 한나의 기도로 그녀는 큰 상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배출한다.

-오벰에돔은 3개월동안 지성으로 법제를 관리하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저주를 끊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 3. 자신의 은사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아말렉 진멸) 그러나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

다가 사명을 놓치고 만다.

-그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이 임하여 괴롭힌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마귀의 밥이 된다.

-엘리의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명.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나라의 대신으로 왕가를 번성케 하는 것이 사명. 그러나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멸망당함. 이들은 왕자로, 대신으로 명문가문을 이루며 번창할 수 있었는데, 그만 왕이 되려 하면서 은사를 망각함. 비슷하지만, 전혀 아닌 은사인 것이다.

-왕의 은사는 내가 하겠노라는 은사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은사이다.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의 전쟁. 찬양과 예배. 그는 찬양하는 자였으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다윗은 자기의 은사에 집중하였다.

#### 4. 복을 받는 핵심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있다.

-모든 사명자, 모든 은사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에, 경배와 찬양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면 은사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은사 활성화를 구해야 하며, 계시를 받으며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실수가 없는 것은 오직 성령충만으로 행할 때.

-실수가 있어도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웃사 사건. 그는 평상시에도 거룩하지 않았으며, 법궤를 옮길 때에도 자기의 고집과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화를 당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에 가까이 갔을 때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

-아마도 오벰에돔이 법궤에 대한 규칙을 잘 설명 했으리라. 그는 법궤는 메고 와야 하며 고핫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을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웃사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했을 것이며 다윗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벤펠은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 갔을 때 오히려 복을 받았다. 그는 고탓자손! 그러자 하나님의 길에 합당하였고 그는 크게 복을 받는다.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오자고 주도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크게 두려워 하여, 하나님의 규칙에 더 철저하고자 하였다. 3개월 후 오벤펠이 크게 복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안심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온다.

-그는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 왕가를 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모든 저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끊어진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섭리      제목:하나님의 길      말씀: 사무엘하 24장

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  
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다윗 개인의 죄악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인데 다윗을 통해서 진노하심. 그가 왕이었으므로. 왕을 위해 중보해야 함.

-다시 진노하심;가장 적절한 때가 되심. 대출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옴. 재앙, 진노하심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로 인한 것.

-격동시키심;다윗에게 마귀가 도전할 것을 허락하심.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다윗이 이 격동케 함에 대한 시험을 이겨야 함.

-그러나 죄인으로서,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전쟁에서 무방비한 상황에서, 아직 연합이 원만치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2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조사;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사악했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헤아려 보기 원했다. 당시의 인구 조사는 군사력의 조사였다.

3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이스라엘 만큼은 당시 하나님의 전쟁을 하므로 자원하여 입대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제도적이고 반 강제적인 형태를 취하므로 백성들의 반감도 살만하였을 것이다.

-다윗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민심을 위반한 사건. 심지어 군 총사령

관이 이 일에 적극적이지 못함.

-강압정치로 가는 수순.

4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몰려나

5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훗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7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8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이튿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만 명이었던대

10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음에 자책함;상상외로 수효가 놀랄만함. 그러나 그 모든 숫자가 다 항상 전쟁에 참여하지는 아니함.

-실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될 사람도 한사람 한사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깨닫게 됨.

-다윗은 자기의 엉뚱한 충동을 인해서 회개함.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성군. 그는 자청해서 회개하고 돌파구를 마련코자 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 최악의 경우 그가 뉘우치는 사람임을 이용하여 이 나라를 보전코자 함.

-만약 다윗이 시험에 통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심. 다윗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복이 됨.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3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재앙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것이었지만, 다윗은 일부러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함. 왜냐면 긍휼하심을 기대하였기 때문임.

-다윗은 저주를 완화시키고, 심판을 방지하는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

15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 명이라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 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8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



서 하매

19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움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땀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삼하24:1-25)

-결국 모든 저주나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밖에는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시함.